

세계 최초 'AI 미인대회' 열린다

세계 최초의 AI(인공지능) 미인대회인 '팬뷰 미스 AI'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에는 AI 도구로 만든 가상의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다. 심사 기준은 아름다움, 기술, 소셜미디어(SNS) 영향력 등이다. 크리에이터 플랫폼인 '팬뷰'가 주최하는 미인 대회로, 총상금은 2만 달러다.



▲ AI 미인대회 심사위원으로 선발된 AI 인물투언서 아이타나 로페즈, 사진=팬뷰 캡처

참가 신청자들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상위 열 명을 가려낸 후 오는 5월 온라인 시상식에서 최종 세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함께 질문 목록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가령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부터 AI의 기술적인 세부사항들까

지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결작을 만드는 AI 도구의 기술과 구현'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팬뷰'는 특히 일부 AI 이미지 생성기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 가령 눈과 손 주변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점수를 매길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한 '소셜미디어 영향력'에 따라서도 점수가 매겨진다. 이 밖에도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 수익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AI 모델의 주요 목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대회 심사위원으로 선발된 아이타나 로페즈는 게시물 하나당 1000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동전 수거해서 1000만 달러 번 기업



▲ 미국인들은 버리는 동전이 연간 최대 6,800만 달러에 달한다. 사진=shutterstock

쓰레기 속 동전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지난 7년간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회사가 주목받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모리스빌에 위치한 폐동전 수거 전문 업체 리월드(Reworld)는 미국 전역에서 버려지는 동전을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최소 1000만 달러 상당의 동전을 모았다.

매년 미국인들이 버리는 동전은 6800만 달러에 달한다. 로버트 웨플스 웨이크포레스트대 경제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100달러나 20달러 지폐를 잃어버린다면 다들 찾을 것이다. 하지만 1페니 동전은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동전 가치보다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소액 동전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WSJ은 이처럼 낮은 액면가의 동전들이 소파 쿠션이나 자동차에 떨어진 뒤 청소기로 빨려 들어가 결국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진다고 설명했다.

리월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 2017년부터 쓰레기장에서 동전, 귀금속 등을 수거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수집하는 동전만 연간 50만~100만 달러에 이른다. 리월드는 모든 동전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거나 지역은행에 입금하고 있다.

동전 수거 수입은 리월드 수익의 일부이며 이 업체는 수익의 대부분을 쓰레기 소각 시설 운영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륙하는데 '벌러덩' 중국 여성의 최후

한 여자 승객 때문에 비행기 이륙이 2시간30분 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남부에서 이륙하려던 비행기에서 한 여성이 드러누운 채 일어나지 않아 출발이 2시간30분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 한 여성이 이륙하려는 비행기 좌석에 누워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사진=홍콩 SCMP 캡처

연방항공청(FAA)은 비행기 이착륙 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한 승객들의 머리와 목 부상을 방지하려 좌석 등받이를 제자리로 올리고, 똑바로 앉은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항공기 승무원들도 지침에 따라 모든 승객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인에도 옆좌

석까지 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웠다. 똑바로 앉아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에도 "몸이 안 좋다"면서 "좌석 옆자리까지 예매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계속 눕기를 고집했다.

결국 공항 경찰까지 등장해 "협조해주지 않을 거면 내려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내가 장애인이었어도 똑바로 앉으라고 했잖나" 등의 주장을 펴면서 비행기 이륙을 지연시켰다.

승객들의 원망과 경찰, 승무원들의 지속된 설득으로 그가 2시간30분여만에 똑바로 앉으면서 겨우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었다.

중국 누리꾼들 "저 여자 때문에 비행기에 갇힌 다른 승객들은 무슨 죄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쫓아내 아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발냄새로 미래를 본다

장원호 발 전문 병원

(발 및 발목 치료 족부 전문 병원)



최첨단(체외충격파, 레이저)기기로 통증, 사마귀, 발톱무증 치료

각종 보험 취급
PPO: United Health Care, Anthem, Cigna, Aetna, Blue Cross Blue Shield
HMO: Seoul Medical Group, Center IPA, Prospect (Daehan) Medical Group



- 분야
- 발 통증, 통풍, 평발, 발목 골절
 - 스포츠 관련 발 & 발목 부상, 인대 손상
 - 관절염, 발가락 변형, 족저근막염
 - 무좀, 내성발톱, 사마귀
 - 발 교정용 & 맞춤형 깔창 처방
 - 발목 또는 발가락 기형 수술
 - 당뇨관련 발치료, 무지외반증
 - 소아족부질환, 소아 안짱다리 교정

— 발 관련 스포츠 부상 관리 및 수술 전문 —

T.949.484.4405

 | 62 Corporate Park Suite #235, Irvine, CA 92606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